

최근 일본 산업계 동향 및 변화



CONTENTS

목 차

요 약

I. 일본 산업계 최근 동향

- 1. 6중고와 기업의 경영난 가중
- 2. 주요 배경

II. 생존을 위한 일본 산업계 구조개편

- 1. 자동차 산업
- 2. 전기전자 산업
- 3. 화학소재 산업

III. 일본 정부 정책

IV. 시사점

요 약

□ 6중고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가중

- 2011년부터 일본 제조업은 6중고(① 엔고, ② FTA 지연, ③ 높은 법인세율, ④ 엄격한 노동규제, ⑤ CO2 배출 25% 삭감, ⑥ 전력부족)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음
- 유럽 재정위기의 확대로 신흥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일본기업의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의 수익이 감소하고 샤프, 소니, 파나소닉 등 가전 메이커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함
- 2011년 일본 무역수지는 31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였으며 이와 같은 적자 추세는 2012년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음.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로는 ① 원전사고 이후 화력발전 증가에 따른 화석연료 수입 증가, ② 코스트 절감을 위한 해외 제품 조달 증가, ③ 글로벌 경기침체 및 엔고에 따른 수출 실적 악화 등을 들 수 있음

□ 산업계 구조 개편과 정부의 지원시책

-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일본의 주요 산업은 해외진출 및 해외생산 확대와 더불어 사회인프라 등 신사업부문 강화를 통한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등 생존을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일본 정부도 이 같은 산업계의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정책, 엔고의 장점을 활용한 해외 M&A 및 자원 개발 지원 확대, 인프라·시스템 수출 등을 촉진하고 있음

- 또한 산업공동화 심화에 대비하여 부품소재분야 및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산업 등의 투자 확대를 위한 입지 보조금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 시사점

- 일본 제조업계의 해외진출 가속화로 현지 조달 증대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부품 조달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이와 같은 움직임을 활용하여 부품 수출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함
- 특히 자동차분야에서는 신흥국 시장을 향후 주요 성장 분야로 설정하고 각 시장에 맞춘 제품 생산을 위해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
- 전기전자분야에서는 모바일, 게임, 사회인프라 등의 분야를 신성장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지금까지 주력해온 TV부문 등의 적자를 만회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 산업계의 유망 분야를 주시하고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기업과 협력 기회도 모색하는 노력이 중요시되고 있음
- 2011년 이후 일본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언급되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태양광 분야의 투자 및 시장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 혹은 태양광관련 장치 및 부품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노력을 통해 성장하는 시장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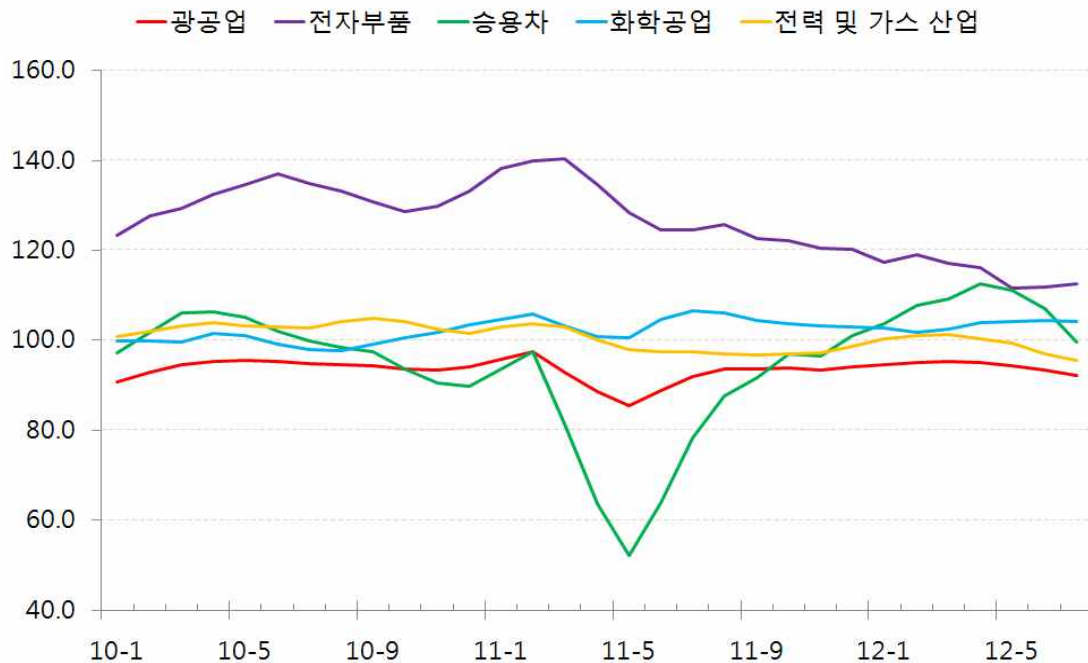
일본 산업계 최근 동향

1. 6중고와 기업의 경영난 가중

□ 일본 기업의 경영난 가중

- 2011년부터 일본 제조업은 6중고(① 엔고, ② FTA 지연, ③ 높은 법인 세율, ④ 엄격한 노동규제, ⑤ CO2배출 25% 삭감, ⑥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11년 후반에는 대지진 및 태국 홍수로 인한 충격에서 서플라인 체인이 빠르게 복구되는데다 2012년 들어서면서 지진 복구 수요가 본격화 되면서 경제 성장이 회복을 보이기도 하였음.
 - 201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7%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확대로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일본 기업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둔화 우려 및 개별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일본 광공업 생산지수는 2012년 들어 지진 재해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광공업 생산지수 흐름이 둔화되고 있음.
- 이처럼 불안정한 내외적 요인으로 일본산업계에서는 경영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의 수익 감소(닛산 제외, 닛산은 중국에서의 판매 증가로 수익 또한 증가)
 - 샤프, 소니, 파나소닉 등 가전 메이커는 사상 최악의 적자 기록(2001년 IT 버블 붕괴 및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를 웃도는 적자)

<일본 광공업생산지수 추이(2010~2012.5)>



주) 2005년 1월(지수=100)기준으로 한 지수, 3개월 이동평균

* 자료원 : 경제산업성(광공업생산지수)자료를 바탕으로 KOTRA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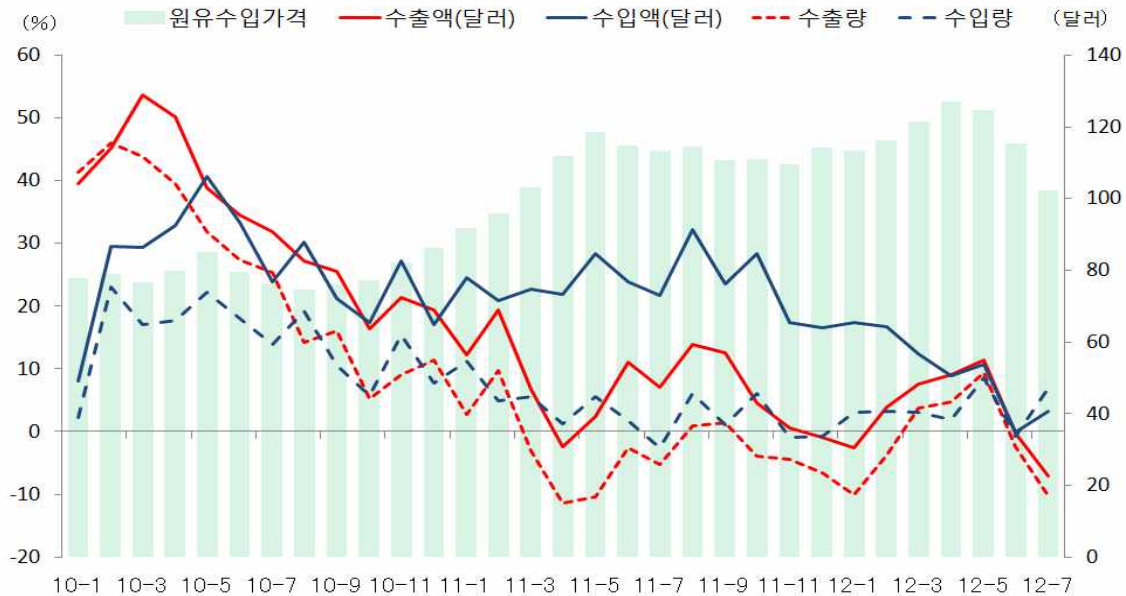
- 물론 이러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나 대부분 자원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거나 전형적인 내수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음.
- '미츠이물산' 등 대기업 상사 4개사는 자원개발에 따른 수익 증가로 2011년 사상 최고이익을 달성하였음.
- 정보통신분야의 '소프트뱅크'도 수익이 전년대비 65% 가량 대폭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소매 유통 대기업인 '세븐&아이홀딩스'도 편의점 고객층 확대 등으로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영업이익이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함.

□ 31년만의 무역 적자 기록

- 2011년, 일본 무역수지는 31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였으며 이러한 적자 추세는 금년에도 이어지고 있음.

-
- 2012년 1~7월간 431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미 2011년 연간 무역적자액 322억 달러를 넘어섰음.
 - 2012년 7월 한달간 무역수지는 65억 달러 적자로 2개월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로는 74% 감소하였음.
 - 수출 : 전년동월대비 7.1% 감소한 6.8억 달러, 수입 : 3.3% 증가한 733억 달러
 - 이렇게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주된 이유로는 ① 원전사고 이후 화력발전 증가에 따른 화석연료 수입 증가 및 자원 가격 상승, ② 코스트 삭감을 위한 해외제품 조달 증가, ③ 글로벌 경기침체 및 엔고에 따른 수출 실적 악화 등을 들 수 있음.
 - 자원 수입량 증가도 주요 원인이나 실질적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에는 자원 가격 상승이라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음.
 - 특히 아래의 '일본 수출입 수량 및 금액 성장률 추이' 그래프에서 수입 수량 성장률보다 수입 금액 성장률 그래프가 높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원유를 중심으로 한 수입상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중국 및 한국 등 라이벌 기업간의 경쟁 격화에 따른 비용절감 필요성 확대 등으로 해외조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수입확대로 연결 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엔고 장기화로 인해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둔화되는 부분도 있으며, 엔고를 제품 가격에 전이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수익저하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음.

<일본 수출입 수량 및 금액 성장률 추이>



주) 원유수입가격(오른쪽표), 수출 및 수입 수량, 금액 성장률(왼쪽표)

* 자료원 : JETRO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KOTRA 작성

2. 주요 배경

□ 엔고 장기화 → 가격 경쟁력 악화

-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제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엔고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엔고의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1달러당 76엔 환율이 반년이상 지속될 경우 일본 제조대기업 32%가 전년 대비 20% 이상의 이익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일본 제조 대기업 50% 이상이 원재료 및 부품 해외 조달 확대, 46% 이상이 공장 및 연구개발 시설 해외 이전을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대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엔고대책으로 87%가 법인세율 인하, 63%가 환율 개입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일본정책금융공고 종합연구소에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엔고의 영향’에서도 중소기업은 거래처가 엔고로 인한 판매 감소 등을 겪으면서 2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 실제 중소기업의 17% 이상이 2011년 7월 이후 엔고로 인해 5% 이상의 영업이익 감소가 있었다고 답하였음.
- 엔고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워 자체적인 ‘코스트 절감’을 우선적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엔고에 따른 제조 대기업 영향(2011)」 주요 내용 >

- ‘1달러당 76엔’ 환율에서 일본기업의 15%가 전년대비 20% 이상 이익감소, 동 수준이 반년 이상 지속될 경우 일본기업 32%가 동수준의 이익감소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67%의 기업이 「경영 노력 및 제품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코스트 삭감」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환헷지를 통한 위험 분산」이 65%를 차지함.
- ‘1달러당 76엔’ 환율이 반년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의 50%이상이 원재료 및 부품 해외 조달 증가, 46%가 「생산 공장이나 연구 개발 시설의 해외 이전」이라고 응답함.
- 18%의 기업이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유치 제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 기업은 엔고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대책으로 「법인 실효세율 인하」가 87%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환율개입」이 63%, 「FTA 추진」이 58%, 「안정적 전력 공급」이 50%, 「생산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지원」이 47%를 차지함

주) 조사대상은 제조 대기업

* 자료원 : 경제 산업성 ‘현재 엔고가 산업에게 주는 영향 조사’, 2011.9.1

< 「엔고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2012)」 주요 내용 >

- 2011년 7월 이후 엔고로 인해 전년대비 5% 이상 이익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17.1%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엔고로 거래처 실적 악화에 따라 판매 및 수주량 감소 (34.7%)」, 「거래처로부터의 가격 인하 요청 (17.5%)」 등임.
- 5% 이상 이익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의 엔고 대책을 보면, 「코스트의 삭감」이 가장 많은 상황이나, 향후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 및 상품 개발로 경쟁력 유지」, 「공장 및 점포 등의 해외 이전」을 생각해야한다는 기업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 2011년 7월 이후, 엔고에 따라 자사 및 자사와 관계가 있는 기업(판매처나 구입처 등)의 해외 이전 및 사업에의 전가가 가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33.1%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기업 비율 23.8%를 웃돌고 있음.

* 자료원 : 일본 정책 금융 공고 종합 연구소, '중소기업에 대한 엔고의 영향 조사', 2012.2.11

○ 일본에서는 엔고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음

- 일본 제국 데이터 뱅크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엔고로 인한 도산이 51건으로 집계되고 있음. (자료: 제국 데이터 뱅크, 2012.7.26)
- 이는 2011년 상반기 27건보다 112.5% 증가한 수치이며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인 도산 원인으로는 「수주 감소」(33.3%)에 따른 도산이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52.9%)의 도산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음.

○ 이러한 환경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산업공동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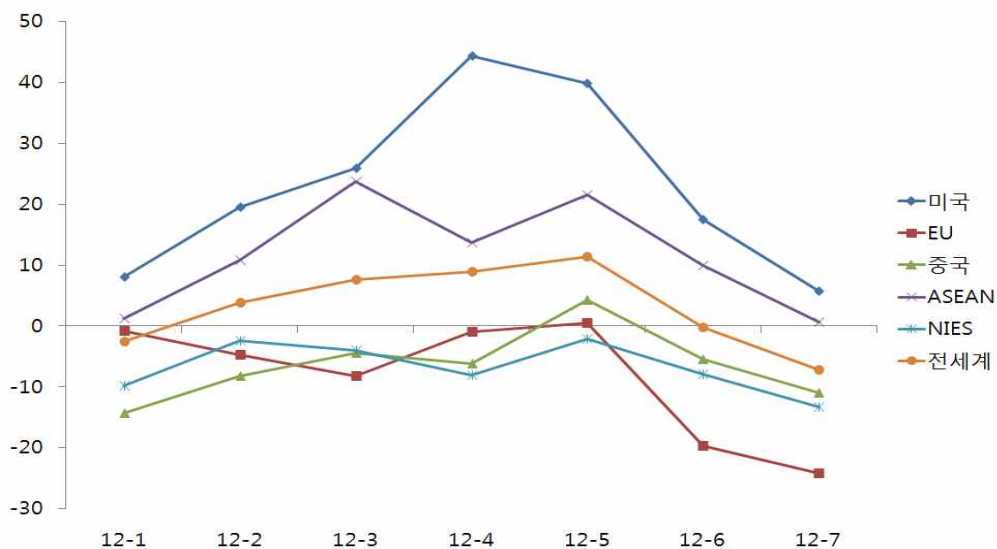
-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제조기업 해외 생산비율은 2011년 34.2%에서 2014년에는 38.5%로 비중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세계 경기 침체 → 수출부진 및 국내 소비 감소

- 일본의 수출은 전년도 지진 재해로 인한 서플라인 체인 피해 복구로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여 2012년 3~5월간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그러나 금년 여름 이후 유럽재정위기 확대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출액이 6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7월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된 상황임.
- 지역별로 보면 EU, 중국, NIES(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지역의 수출 감소폭이 큼 (*NIES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4개국 합계)
- 일본의 국별 수출 비중으로는 EU 11.6%, 중국 19.7%, NIES 22.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수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임.
- 특히 금년 7월 EU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4.2의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함

<일본의 국가별 수출 증감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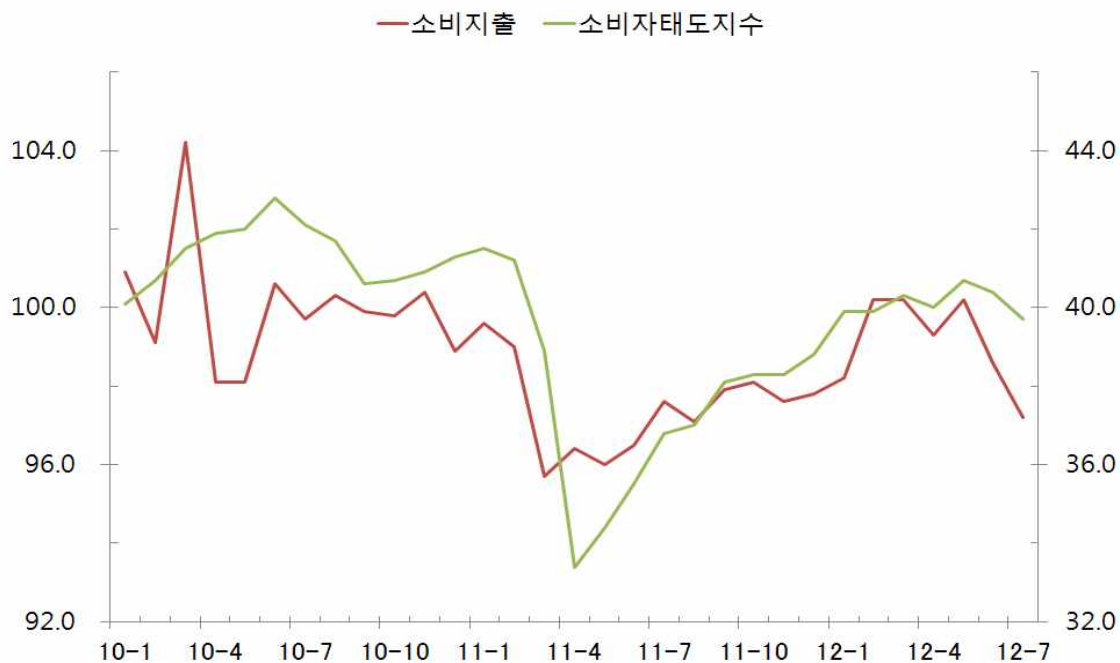


주) 증감율은 전년동월비 기준, 달러기준으로 산출

* 자료원 : JETRO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KOTRA 작성

- 이러한 세계 경기 침체는 일본 국내소비지출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일본 내수 기업 및 소비재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음.
- 일본 소비자의 소비지출 및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태도 지수를 보면 지진 재해 후 지금까지 개선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추가 상승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금년 7월 일본 소비지출액은 오히려 전월대비 1.3% 감소.
- 이에 따라 총무성은 지난달까지 '지진 재해전의 수준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있음'이라는 경기판단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으로 경기 판단을 하향 수정하였음.(경기판단 하향 수정은 2011년 11월 이후 처음)
- 또한 에코카 보조금 등 정부 경기진작 대책 종료 등이 더해져 현재 일본 국내 소비 전망은 어두운 상황임.

<소비 동향 추이 (2010.1~2012.7)>



주) 계절조정치 반영

* 자료원 : 일본 내각부, 총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작성

□ ‘중국’, ‘한국’ 기업 약진 → 가전, 반도체, 축전지 등 시장 빼앗겨

- 최근 세계시장에서 중국 및 한국기업의 약진으로 일본기업이 시장을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일본 닛케이산업신문(2012.7.30) 보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품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한국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품목은 8개 품목으로 일본의 9개 품목과 격차가 1개 품목 차이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임

<한중일, 세계시장 선도 품목>

▶ 2012년

한국(8)	DRAM, 스마트폰, SSD, NAND형 플래쉬 메모리, 유기EL 패널, 플라즈마 패널, 액정패널 등 8개 품목
일본(9)	리튬이온전지, 백색LED 등 9개 품목
중국(6)	태양전지, 조선, 세탁기, 냉장고 등 6개 품목

▶ 2010년

한국(5)	평판 TV, 액정패널, 유기 EL패널, DRAM, NAND형 플래쉬 메모리 등 5개 품목
일본(6)	자동차, 산업용자동차, 플라즈마 패널,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백색 LED 등 6 종류
중국(0)	세계시장 쉐어 1위 품목 없음 (粗鋼, 태양전지 2개품목은 2위)

▶ 2005년

한국(4)	액정 패널, 플라즈마 패널, DRAM, 플래쉬 메모리 등 4 개 품목
일본(10)	산업자동차, 플라즈마 TV,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 10개 품목
중국(0)	없음

▶ 2000년

한국(0)	없음
일본(8)	액정표시장치(LCD), 컬러TV, DVD 플레이어, 콤팩트 카메라 등 8개 품목
중국(0)	없음

* 자료원 : 닛케이산업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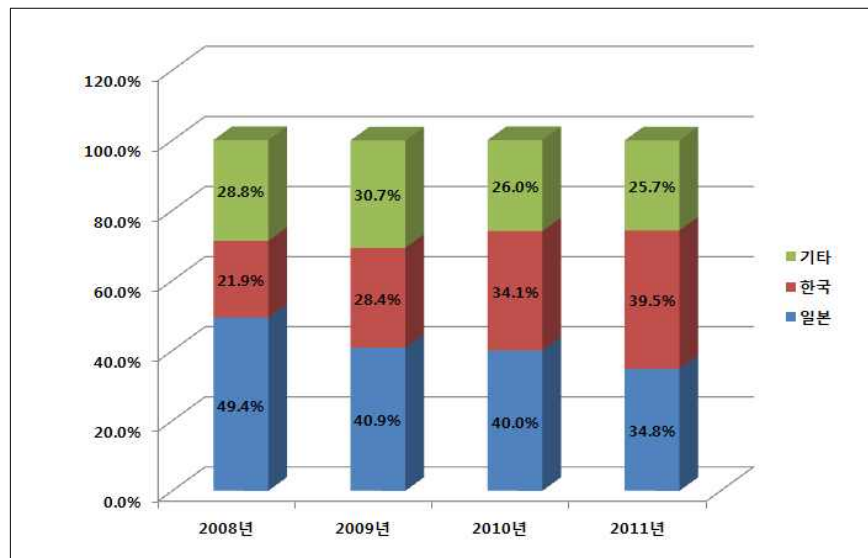
- 특히 리튬 이온 2차 전지의 세계 시장점유율 랭킹을 보면 1위인 파나소닉과 2위 삼성 SDI의 차이는 0.3%에 불과하며, 국적기준으로는 2011년 한국이 일본을 역전하였음.
- 2008년만 하여도 일본제품이 약 50%를 차지하였고 한국제품은 21.9%였으나 2011년에는 일본제품이 34.8%, 한국제품이 39.5%로 역전되었음.

<리튬이온 2차전지, 업체별 세계 시장 점유율>

순 위	2011년		2008년	
	업체명	점유율	업체명	점유율
1위	파나소닉	23.5%	三洋電機	23%
2위	삼성SDI	23.2%	삼성	15%
3위	LG화학	16.2%	소니	14%
4위	소니	8.5%	BYD	8.3%

* 자료원 : 닛케이산업신문

<한국과 일본의 리튬이온 전지 세계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원 : 테크노시스템리서치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중국 및 한국기업에게 일본기업들이 차레차레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데 대해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상황임.
- 총무성이 발표한 'ICT 국제경쟁력지표'에 의하면,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단말기기 및 디바이스분야에서 4년전 대비 크게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 시장 점유율 감소가 두드러지는 일본기업 제품>

품목명	2008년	2010년	2013년(전망)
휴대전화기	14.2%	7.7%	1.9%
스마트폰	-	10.2%	3.7%
프로세서	1.6%	1.2%	0.5%
PC용 액정 디바이스	2.3%	1.2%	0.3%

* 자료원 : 일본 총무성 통계

□ 원전 사고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 기업 경영 코스트 상승

-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에 의한 전기 요금 인상 문제도 일본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기요금 인상 현황>

▶ 전기요금 부과 산식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연료비 조정액)] +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 + [태양광 발전 촉진 부과금]

▶ 전기요금 인상 3가지 요소

①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자원의 국제가격 흐름에 따라 '연료비 조정액'이라는 명목으로 조정을 하고 있으며, 매월 가격을 변경하고 있음. 최근 자원가격 상승에 따라 연료비 조정액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음. 다만 최종 적용 가격은 전력회사간 전기요금플랜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움.

② 새로운 세금 제도 도입

- 2012년 10월 1일 기업 및 가정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새로운 세금징수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환경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대책세'임. 과세 대상은 석유·가스·석탄을 사용한 에너지 제품이며, CO2 배출량 1톤 당 289엔으로 설정되어 있음.
- 지금까지는 '석유·석탄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된 것임. 환경성의 계산으로는 전기요금이 1kWh당 0.11엔 가량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아직 각 전력회사가 이러한 세금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킨 상황은 아니나 향후 새로운 세금 도입에 따라 전력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임.

- 또한 최근 신규로 추가된 부담금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부과금'이 있음. 이는 금년 7월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가 시작되면서 전력회사의 고정가격 매입을 위한 비용 조달을 위해 설치된 부과금임. 또한 2009년부터 시작된 「태양광 발전의 잉여 전력 매입 제도」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하기도 하였음.
- 각 부담금 산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 재생 가능 에너지 부과금=사용전기량(kWh)×0.22
 - 태양광 발전 촉진 부과금=사용전력량(kWh)×부과금 단가(엔/kWh)

<전력회사별 태양광 부과금 단가표>

(엔/kWh)

홋카이도	도호쿠	도쿄	추부	호쿠리쿠	관서
0.03	0.04	0.06	0.11	0.04	0.05
츄고쿠	시고쿠	큐슈	오키나와		
0.11	0.1	0.15	0.11		

③ 원전 정지로 인한 화력발전 코스트 상승

- 최근 원자력 발전 정지(현재 2기만 운영중)로 인해 화력발전을 위한 연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각 전력회사들이 전기 기본요금을 인상하였거나 인상할 계획으로 있음. 도쿄전력의 경우 기본 요금체계 개정을 통한 요금 상향 조정은 32년만임.
- 요금인상율은 각 전력회사 및 전기요금 플랜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 할 수는 없으나,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평균 8.46% 가격이 인상됨. 일반적인 전력 요금 모델인 <계약 전력 30 암페어, 월사용 290킬로와트>의 경우 6월의 전력요금 대비 7월 요금은 359엔(5.1%) 상승한 7,332엔 수준이 됨. 가격 인상 대상은 편의점이나 소규모 사무소 등을 포함한 2,878만 건임.

- 일본 상공회의소 조사(2012.5)에 따르면 전 산업 분야에서 전력요금 상승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81.2%에 달하였음.
- 특히, 전기 요금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그대로 전가할 수 없어 수익 감소를 염려하는 기업이 58.7%로 가장 많았음.
- 구체적 사례로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2012년 4월 1일부터 월 6,070만 엔 정도의 비용이 증가(주물제조업)',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의 조업을 검토 할 예정(금속품 제조업)' 등이 있었음.
- 또한 사이타마 리소나 산업경제진흥재단의 조사(2012.7)에 따르면 전기 요금 인상이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염려하는 기업은 72.7%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일본 정부는 금년 9월 14일,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제로로 한다는 새로운 에너지·환경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경제계에서는 전력 코스트 상승 및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전력 코스트 상승으로 일본경제는 망가지게 될 것' (일본경제단체 연합회 회장)
 - '2030년 원전 제로 전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 '노다 정권에 실망하였음'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 '향후 원자력발전을 제로로 만들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대 2.1배 상승할 것' (일본철강연맹)
 - '국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일본 산업계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음' (일본 화학공업협회 회장)

□ 향후 전망

- 세계경제 성장은 2012년부터 내년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경제전문기관들 사이에서는 향후 세계경제가 감속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가 되고 있음.

- 특히, 금년 9월 들어 IMF, OECD 양 기관 모두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더욱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실질GDP성장률)>

(단위 : %)

국가	2011년	IMF 전망 (2012.7)		OECD 전망 (2012.5)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전세계	3.9	3.5(-0.1)	3.9(-0.2)	-	-
일본	-0.7	2.4(0.4)	1.5(-0.2)	2.0	1.5
미국	1.7	2.0(-0.1)	2.3(-0.1)	2.4	2.6
유로지역	1.5	-0.3(0)	0.7(-0.2)	-0.1	0.9
아시아개도국	7.2	7.1(-0.3)	7.5(-0.4)	-	-

주) IMF 전망 괄호안의 수치는 2012년 4월 전망치와 차이를 의미

* 자료원 : IMF, OECD

- 지역별로 보면 유럽은 아직 경기 회복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며, 아시아 지역마저 최근 저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세계경기 침체의 주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 경기 회복이 난망한 상황임.
-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기업부문과 가계부문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 및 소비자가 아직 소비지출에 신중한 상황으로 강력한 경제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임.
- 아시아 경제는, 유럽 경기 감속 등의 원인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중국이 3년여 만에 저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만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하는 등 경기 감속의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반면 일본경제는 대외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당분간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지진복구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그러나 2013년부터는 복구수요도 어느 정도 끝나는데다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가 침체될 우려.
- 환율의 경우 올해 8월 중순부터 유럽위기 재발과 함께 엔고가 다시 시작되었음.
- 엔고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나, 2013년 이후로는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일본 및 미국간 금리차 확대에 엔화 가치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 원화대비 엔화 환율은 원화가치 상승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나 엔화 대비 급격한 가치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환율 추이 (2011.1-2012.8)>



주) 원/100엔(왼쪽좌표), 엔/달러(오른쪽 좌표)

* 자료원 : 한국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KOTRA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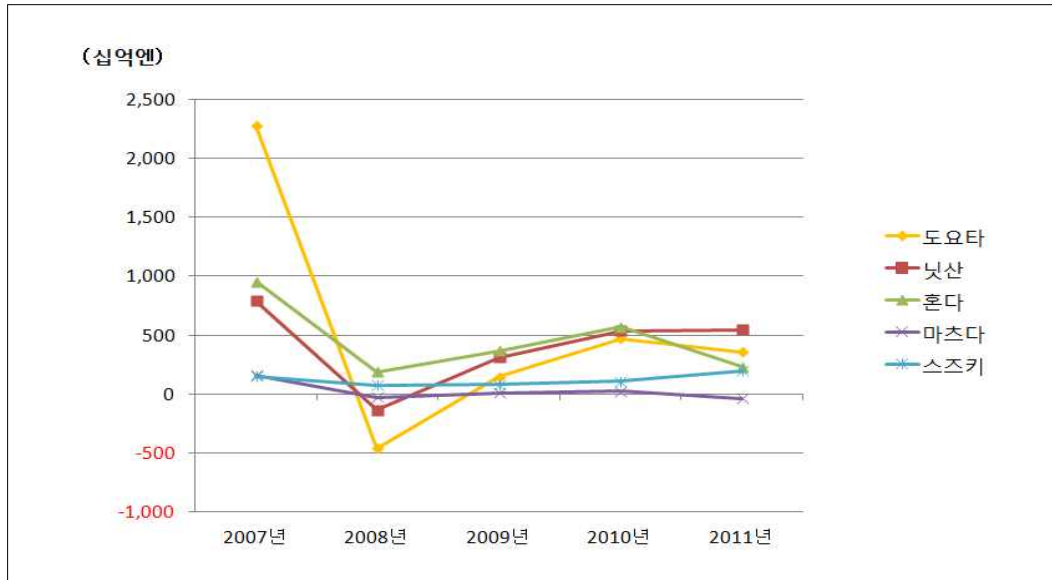
- 이밖에 일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향후 잠재 리스크로는 ① 소비세 인상(2014년 4월부터 소비세는 현재 5%에서 8%로 인상됨)으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 ② 정계개편에 따른 정치 공백(9월 민주당 및 자민당 대표선거 이후 자민당에 의한 중의원 해산 요구 및 총선거 가능성)등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중국 반일시위로 인한 중국진출 일본기업들의 수익 저하로 인한 경제적 타격, 전기 요금 인상 리스크 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주요 산업별 키워드 변화 추이>

산업 구분	기존(2000년)	현재(2011·2012)	전망
자 동 차	친환경자동차 - '99년 세제개편으로 저공해차 우대 세제 도입. 직분엔진, 차량 경량화 기술 진전 등	해외시장 확대 - 부품조달 글로벌화 - 신흥국 집중공략	EV 보급으로 업계구조 변화 -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기존 완성차 업체 이외의 신규진입 기업 증가
전 기 전 자	차세대디지털미디어 - MD, DVD 등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보급 및 확산	구조조정과 미래사업 발굴 - 대규모 적자로 인원 감축,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지속 - 태양광 발전 등 사회 인프라 및 솔루션 판매 등 미래사업 발굴 및 강화	생활인프라 기업 - 단순전기제품 생산이 아닌 생활 인프라로서 네트워크화 된 제품 (주택, 가전, 자동차, 발전기 및 축전지 등) 및 관리 서비스,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변신
화 학 소 재	업계 재편 - 스미토모화학과 미츠이 화학 사업통합 (2003년 다시 철화)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체간 통합 및 협력 등 재편이 가속	고부가가치 제품 해외진출 가속 - 차별화를 위해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고부가가치제품 생산 주력 - M&A 및 제휴 등 다각적인 해외 진출 전략 구사	환경 - 신흥국 화학제품의 소비량 증가 등으로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등에 대한 방안 강화될 것

<산업별 주요기업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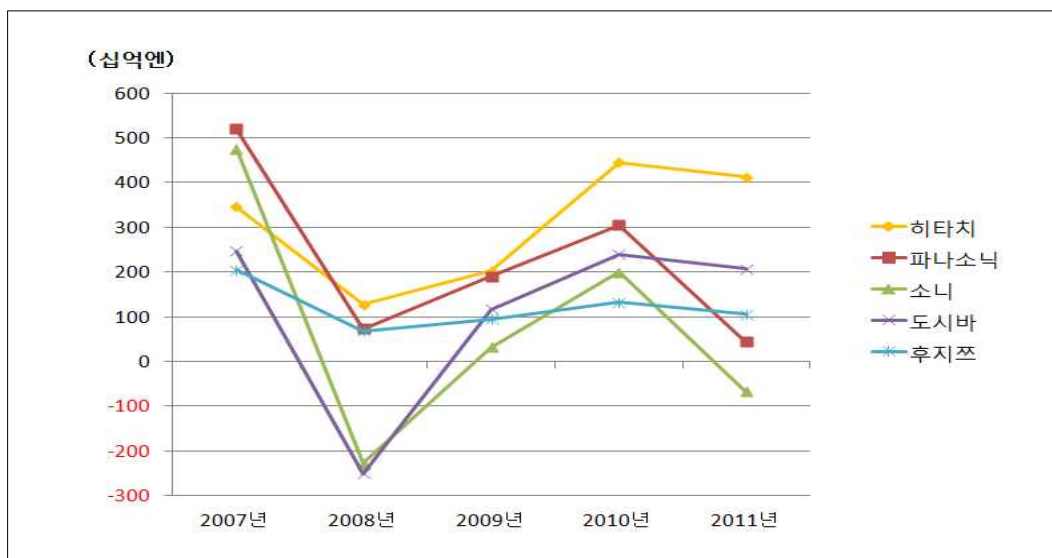
▶ 자동차 산업



(단위 : 백만엔)

연도	도요타	닛산	혼다	마츠다	스즈키	합계(5사)
2007년	2,270,375	790,830	953,109	162,147	149,405	4,325,866
2008년	-461,011	-137,921	189,643	-28,381	76,926	-360,744
2009년	147,516	311,609	363,775	9,458	79,368	911,726
2010년	468,279	537,467	569,775	23,835	106,934	1,706,290
2011년	355,627	545,839	231,364	-38,718	199,304	1,293,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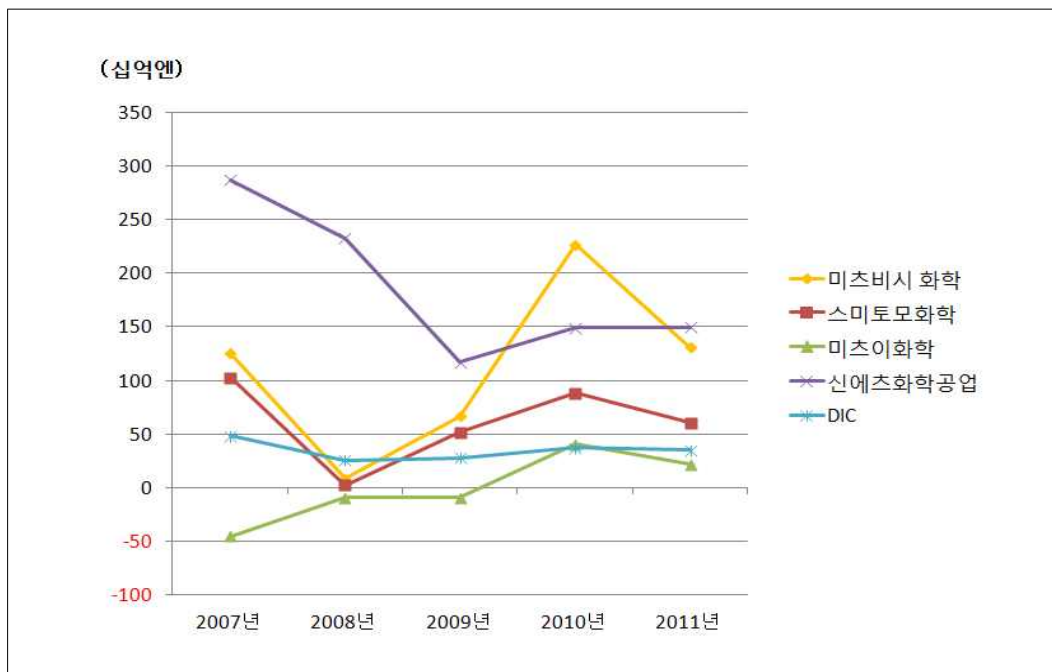
▶ 전기전자 산업



(단위 : 백만엔)

구 분	히타치	파나소닉	소니	도시바	후지쯔	합계(5사)
2007년	345,516	519,481	475,300	246,393	204,989	1,791,679
2008년	127,146	72,873	-227,800	-250,186	68,772	-209,195
2009년	202,159	190,453	31,772	117,191	94,373	635,948
2010년	444,508	305,254	199,821	240,273	132,594	1,322,450
2011년	412,280	43,725	-67,275	206,649	105,304	700,683

▶ 화학소재 산업



(단위 : 백만엔)

구 분	미츠비시 화학	스미토모 화학	미츠이 화학	신에츠 화학공업	DIC	합계(5사)
2007년	125,046	102,400	-45,500	287,145	48,373	517,464
2008년	8,178	2,100	-9,500	232,927	25,356	259,061
2009년	66,342	51,455	-9,461	117,215	27,814	253,365
2010년	226,493	87,957	40,548	149,221	37,152	541,371
2011년	130,579	60,688	21,564	149,632	34,960	397,423

1. 자동차 산업

□ 가속화 되는 해외 진출 및 해외 생산 확대

- 도요타 자동차 사장이 주주 총회(2011.6.17)에서 해외 생산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자동차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실질적으로 해외 생산 법인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을 제외 하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며, 2010년 기준 1,645개사(2012.1월 발표)에 이르고 있음.
- 최근 자동차 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으로는 해외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한 진출과 FTA 활용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한 진출 사례)

- 닛산은 해외시장의 경우 현지시장만의 특성 및 니즈가 있어 해외 제조거점 확충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닛산자동차는 일본 고도 경제 성장기 대표 브랜드였던 'DATSUN'을 신흥국 전용 브랜드로 부활시킬 계획임.
- 동 자동차는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에서 생산하여 2014년 출시할 예정이며, 2016년까지 이들 3개국에서 판매하는 신차의 절반수준으로 만든다는 계획임.
- 인도네시아에는 330억 엔을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2014년까지 현재의 2.5배 수준인 25만대로 높일 계획임.
- DATSUN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신흥국 각국의 환경규제, 도로사정에 맞추어 제작된다는 것임.

-
- 인도네시아에서는 3열 시트가 특징인 미니밴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안전성 뿐 아니라 조용함을 위한 기능을 갖춘 차량이 될 것임.
 -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판매될 차종은 신흥시장용 플랫폼으로 개발된 V플랫폼을 활용해 90% 이상의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할 예정임.
 -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자동차 대기업 'AvtoVAZ'의 플랫폼을 사용해 소형차(배기량 약 800cc)를 생산 및 판매할 예정임.
- 혼다도 인도에 총 300억 엔을 투자하여 디젤 엔진 공장을 건설하고 2013년부터 가동하여 소형차 판매를 확대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이는 디젤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인도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임.
- 실제 인도에서는 가솔린 가격에 비해 경유 가격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디젤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요타와 같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혼다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디젤차 생산을 시작하게 된 것임.
- 이러한 완성차 업계의 흐름에 따라 일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는 해외조달 확대에 따른 일본 국내 부품 업체들의 위축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실제로 그동안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완성차 업체가 해외진출을 할 당시 해외생산에서도 일본과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관련 1차, 2차 일본 부품 메이커들이 함께 진출해왔음.
 - 그러나 향후 'DATSUN'과 같은 50만 엔 수준의 신흥국용 자동차를 만들 때 일본 부품메이커로부터의 조달을 고집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대답은 확실히 'NO'라고 할 수 있음.
- 앞으로 일본 완성차 업계는 더욱 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서플라인

체인(supply- chain) 또한 일본벤더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FTA를 활용한 해외 진출 사례)

- 도요타 자동차는 금년 1월 한국에 수출하는 주력 차종인 'CAMRY'의 생산 공장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미국 켄터키주의 공장으로 이전하였음.
- 이는 한-미 FTA(2012.3.15)에 따라 미국 거점을 활용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임.
- 또한 닛산, 미쓰비시, 스즈키 자동차가 일본과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한 국가인 태국에서 세계 전략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 또한 FTA를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태국은 일본과의 EPA를 통해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투자를 유치해 왔음.
-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추진되면 이를 활용하여 해외 거점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완성차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TPP에 참가의사를 밝힌 9개국 중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6개국은 일본 참가에 조건없이 동의를 한 상황임.
 - 호주, 뉴질랜드 2개국에서는 농업부문 완전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 경자동차 규격 폐지 및 미국 자동차 수입량 확보, 농수산물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부품 조달의 글로벌화

- 일본 완성차 업계의 해외진출 확대로 부품 조달이 더욱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으나, 일본 국내 제조의 경우에도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 조달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닛산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 2012년 8월, 닛산 시가토시유키(志賀俊之) 최고집행책임자(COO)는 엔고가 지속될 경우 중국 및 태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더욱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밝힘.
 - 닛산은 일본 완성차 업계 중 해외조달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이며, 상용차 ‘캐러밴’의 경우 부품의 약 40%를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음.
 - 올해 1월에는 신형 상용차 ‘NV350 캐러밴’의 생산에 한국 부품을 20% (금액기준) 채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음.
 - 닛산 르노 연합계열인 한국 르노삼성자동차의 부품 조달망을 활용해 부산에 거점을 둔 한국부품업체 26개사로부터 내장재, 미러 등의 부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함.
 - 닛산 규슈공장과 부산의 거리는 약 200km로 일본 관동과 중부지역보다 오히려 가까움.
 - 이로 인해 한국부품의 품질이나 납기가 일본부품 수준과 비슷한 반면, 일본부품보다 조달비용과 제품 자체의 가격경쟁력 등이 뛰어난 상황으로 대량조달을 단행하게 된 것임.
- 이와 같이 엔고 상황에서 가격경쟁력 확보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어 코스트를 보다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품 해외조달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외국계 자동차와의 제휴 확대

- 최근 일본 완성차 업체는 기술공유 등을 위해 해외 자동차 기업과 제휴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세대 자동차의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음.

- 금년 6월 도요타는 BMW와의 제휴를 발효하였음. 이번 제휴는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연료전지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BMW는 스포츠카 개발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양사의 강점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임.

2. 전기 전자 산업

□ (히타치) '사회 인프라'사업으로 흑자 호조

- 일본 전기전자 기업들은 2011년 과거 최대 적자를 기록한 이후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한창임.
- 그러나 홀로 흑자를 유지하는 업체로 '히타치 제작소'가 있음.
 - 2010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4% 증가한 9조 3,158억 엔, 영업이익은 120% 증가한 4,445억 엔으로 전기전자 대기업 8개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11년도에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9조 6,659억 엔,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3% 감소한 4,123억 엔을 기록하였음.
- 히타치 제작소도 2008년도에는 7,873억 엔이라는 최대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성공적인 구조개혁 및 체질 개선을 통해 흑자를 달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일본 전자전기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많음.

- 히타치 제작소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게 된 것은 수익성의 변동이 큰 사업은 버리고 '사회인프라 시스템'이라는 성장분야에 집중하였기 때문임.
-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플랜트 관련 기기나 정보·통신 시스템 등 사회 인프라 관련 부문이 흑자를 견인하였음.
- 또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승강기, 건설기계 분야도 성장을 보였으며 전력 관련 분야도 2011년 이후 화력발전소 관련 제품이 성장하여 흑자로 전환되었음.
- 즉, 수익성 변동이 컸던 평판 TV의 생산거점을 연달아 매각하였으며 컴퓨터 수요 감소를 예측한 하드디스크(HDD) 사업 매각 및 상장 자회사의 구조개혁 및 사업재편 등을 진행하였음.
- 반면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사회 인프라 관련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재편하고 동 분야에 자원 투입을 집중하였음.
- 2012년 4월에는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동 사업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5개 그룹(인프라시스템 그룹, 정보·통신 시스템 그룹, 전력 시스템 그룹, 건설기계 그룹, 고기능 재료 그룹)체제로 조직을 세분화하였음.
- 히타치 제작소의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업전략을 과거 최대 적자를 기록한 타 기업들도 서둘러 채용하고 있음.

□ (도시바) TV사업구조 개편으로 2012년 흑자 전망

- 도시바의 경우에도 히타치제작소와 마찬가지로 2011년 영업이익은 2,066억 엔 흑자를 달성하였음.
- 매출액은 전년대비 5% 감소한 6조 1,033억 엔, 영업이익은 14% 감소한 2,066억 엔을 기록함.

- 이러한 흑자에는 히타치 제작소와 마찬가지로 ‘사회 인프라’ 부문의 매출 확대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전자 디바이스 분야 또한 흑자를 기록하였음.
 - 사회 인프라 분야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6억 엔 증가한 1,342억 엔이었으며, 화력 및 수력 발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음.
 - 전자 디바이스 분야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90억 엔 증가한 902억 엔으로 메모리 판매 증가, 기억장치 사업 호조, 액정 디스플레이 사업 구조개편 등으로 증가
- 반면, TV사업 및 PC사업 부진 등으로 디지털 제품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71억 엔 감소하면서 282억 엔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도시바는 TV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2012년 하반기 TV사업의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도시바의 TV사업 재편 전략은 크게 ‘합리화 노력’ 과 ‘신사업 강화’ 두 가지
- 합리화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 일본 국내 TV 생산의 중단을 들 수 있음.
 - 도시바는 일본 사이타마현에 있는 후카야(深谷) 사업소의 TV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일본 국내 생산에 마침표를 찍었음.
 - 대신 해외 ODM메이커 생산위탁 비율을 40%대에서 50%대 초까지 높일 예정임.
 - 1965년에 조업을 시작한 후카야 사업소는 과거 도시바의 TV 생산 핵심거점이었으나 향후에는 TV 설계와 개발, 애프터서비스 거점으로 존속될 예정임.
- 또한 2013년에 발매하는 액정 TV 모델 수를 전년대비 60% 축소하고 조달하는 패널의 종류도 54% 줄일 예정임. 금형의 공유를 통한 내부 비용절감 전략도 세우고 있음.

-
- 실제로 TV사업의 경우 일본 국내시장의 침체를 신흥국 판매확대에만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체질개선을 위한 생산체제 재편은 불가피한 상황임.
 - 신사업 강화 전략은 하드웨어적인 TV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TV로 포지셔닝하는 것에서 출발.
 - 인터넷으로 소프트웨어와 각종 서비스의 교환·공유가 중요해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서는 하드웨어적인 TV의 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인터넷에서의 서비스와 정보를 유통시키는 디바이스로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TV와 인터넷 서비스의 융합을 기본으로 한 ‘Digital Product Solution’이라는 신사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2016년까지 2,000억 엔의 매출을 목표로 함.
 -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TV로 인터넷의 영화, 음악, 전자서적 등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가전제품 전력소비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 가능해짐.
 - 이는 TV 광고에서 ‘제품이 가볍고 얇다’라고 말하지 않는 미국 애플사처럼 도시바의 TV 또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중점을 두겠다는 전략임.
 - 또한 TV를 개인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에서 기업이 구매하는 제품으로 제품의 범위를 넓히려고 함. 이는 지역 내 에너지 절약, 방재, 안전, 의료 등의 정보를 TV로 보내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품의 범위를 확대 할 예정임.

<도시바의 TV사업 구조개혁안>

합리화 전략	일본 국내 생산 중단
	2012년도 ODM비율 50%이상으로 확대
	2013년까지 모델수 60% 감축
	2013년까지 패널종류 54% 감축
신사업 강화 (성장 전략)	2012년 신흥국 매출 45%까지 확대
	지역밀착형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광고비 2014년까지 3배 확대, 영업인력 1.6배 증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확충
	맨눈으로 보는 3D, 4K 등 기술 선도 제품 투입

* 자료원 : 니혼게이자이신문

□ (소니) 디지털 이미징, 게임, 모바일 분야를 핵심사업화

- 소니는 2011년 4,566억 엔이라는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일본 전자업계 추락의 대표주자가 되었음.
- 이러한 적자는 TV 및 휴대전화 사업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TV사업의 경우 판매부진과 가격하락이 겹쳐 전년보다 매출이 약 30% 감소하였음.
- 실제로 소니의 3대사업 중 금융사업(1,314억 엔 흑자)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710억 엔 흑자) 부문이 흑자를 내고 있으나, 전자사업(TV 및 휴대전화 사업)의 적자를 보충하기엔 역부족이었음.
- 이에 따라 소니는 2012년 4월 1일자로 사장을 교체하고 전자사업 재생 및 신성장 전략에 나서고 있음.

- 전자사업 재생을 위해 우선 디지털 이미징, 게임, 모바일이라는 3가지 분야를 중점사업 영역으로 채택하였음.
- 이 3가지 사업 분야가 전자사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을 2011년 기준 60%에서 2014년까지 70%까지 확대하고 고수익 구조를 실현 하겠다는 계획임.
- (디지털 이미징 분야) 세부 품목으로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및 렌즈 교환식 카메라, 방송국용 카메라 및 감시 카메라, 이미지 센서 등이 있음.
- 이 분야에서 2014년까지 매출액 1조 5천억 엔, 영업이익 1,500억 엔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게임사업) 'Play Station3'를 시작으로 'PS Vita', 'PSP' 등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확실한 이익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며, 게임사업 전체로 2014년까지 매출액 1조 엔, 영업이익율 8%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모바일 사업) 스마트폰인 Xperia, 태블릿 PC인 Sony Table 등이 있으며, 이중 스마트폰 분야의 개발을 보다 강화하여 태블릿과 일반 PC와의 융합 강화 및 코스트 삭감을 진행할 계획임.
- 이외에도 TV 및 각종 전자제품간의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어 스마트폰이 이러한 기기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데 착안, 관련상품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임.
- 또한 의료분야 사업도 유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까지 매출액 500억 엔으로 성장시켜 현재 3대 사업분야를 의료분야를 포함하여 4대 분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전기전자업계의 화두는 「선택과 집중」

- 일본 전기전자 기업은 비핵심 사업을 과감히 버리고 성장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

- 그리고 이러한 전략 아래 TV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향후 유망분야(사회인프라, 게임 및 모바일, 의료 등)로의 시프트를 진행하고 있음.

3. 화학 소재 산업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집중

- 일본의 화학산업은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감소하는 국내수요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로 보완하며 성장해왔음.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2000년 이후 신흥국의 경쟁기업이 등장하면서 점차 작동하지 않게 되었음.
 - 예를 들어 석유화학의 대표적 제품인 에틸렌 생산은 최근 중국 및 중동에 서 대규모 플랜트가 완공되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경쟁국의 플랜트는 일본 메이커의 플랜트보다 규모가 크고, 효율성이 높는데다 중국은 수요지와 가깝고 중동은 원료 생산지와 가깝다는 강점이 있어 일본이 열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임.
- 이 때문에 일본의 화학제조사는 다른 경쟁국에서 제조하기 어려운 고기능제품 제조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해 왔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자재료(반도체, 액정,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사용하는 재료), 의료기기(인공신장, 카테터 등)등 고기술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는 전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수익성을 높인 결과 실제 전자재료 분야에 강한 신에츠화학공업(2011년도 매출액 1조 477억 엔, 영업이익 1,496억 엔), JSR(2011년도 매출액 3,499억엔, 영업이익 359억 엔) 등은 영업이익율이 10%를 넘는 고수익성을 자랑하고 있음.

-
- 또한 고부가가치제품의 연구 개발을 위해 자사 연구소를 확충하거나 대학과의 제휴 및 벤처기업 매수 등에 집중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 해외진출 가속화

- 최근 화학소재 업종에서도 해외진출 가속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 산업 특성상 대규모 플랜트 설립이 필요하거나 거액의 R&D 비용이 드는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큰 상황이라 해외 진출이 효과적인 상황임.

(화학소재 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 신일본제철화학 (新日鐵化學)
 - 중국 장쑤성에 카본블랙의 생산 및 판매 거점을 신설할 계획임. 투자액은 약 130억 엔, 매출액은 약 200억 엔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부터 설비 가동을 시작할 예정임.
 - 세계 최대의 콜타르(Coal Tar) 증류 기업인 미국 코퍼스(Koppers Holdings)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화할 예정임.
 - 신흥국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코퍼스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전로용(電爐用) 흑연 전극의 원료가 되는 니들 코크스, 자동차용 타이어 등 원료가 되는 카본블랙을 생산할 예정임.
- 미츠이 화학 (三井化學)
 - 미츠이 화학의 자회사인 '미츠이화학 히가시세로(MCTI)'와 태국의 'SCG 케미칼즈'사는 LLDPE 필름 합작회사 및 공장을 태국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음.
 - 신설 공장은 2013년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총 투자 자본금은 14.5억 엔으로 생산능력은 연간 1.5만 톤임.

III

일본 정부의 대응

□ 금융정책

- 일본 은행은 2011년 10월 이후 '엔고 종합 대응책'을 만들고 지속적인 금융완화를 실시하고 있음.
 - 2011년 10월 27일 '자산매입 등 기금'을 50조 엔에서 5조엔으로 증액함
 - 2012년 2월 14일 '중장기 물가안정 목표'(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전년대비 2% 이하 수준으로 유지 목표)를 발표하고 우선 소비자물가가 디플레이션을 벗어나 1%를 넘어 설수 있을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 및 금융자산 매입 등 강력하게 금융완화를 추진해 가고 있음.
- 엔고가 지속됨에 따라 일본정부에서는 2011년 8월에 이어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9.1조 엔의 환율개입을 실시하였음.
- 또한 외환시장의 어떠한 변동에도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 3차 보정 예산, 제 4차 보정 예산을 통해 외환 자금 증권(FB) 발행 등의 한도액을 45조 엔 확대한 195조 엔으로 결정하였음.
- 유럽 위기에 따른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은 경제 및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시하고 적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임.

□ 엔고 활용을 통한 M&A, 해외 자원개발 촉진 정책

- 일본기업들이 '엔고'의 장점을 활용한 해외 M&A 및 자원개발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서는 국제협력은행(JBIC)의 융자 및 출자 기능 등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지방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융자, 산업혁신기구의 출자, 민간 자금을 함께 동원한 펀드를 통한 출자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음.
- 현재 약 8조 엔인 외환자금특별회계 분야에서 JBIC의 융자범위를 약 2조 엔 가량 추가하여 10조 엔 규모로 확대함
- 또한 석유 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에의 출자 확대를 통해 희토류 원소 등 광산 개발권 취득, 천연가스 개발권 매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산업혁신기구의 정부 보증범위를 1.8조 엔까지 확충하여 해외 M&A를 촉진하고 있음.
- JBIC의 융자 실적(2011.10.21~2012.10월)
 - 총 10건 약 3,400억 엔 이용, 해외 M&A의 경우 총 2건, 약 14억 달러 이용
 - 자원 확보 사례로는 호주, 파푸아뉴기니에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권 취득을 위한 JBIC 융자가 있음. 동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570만 톤, 일본의 총 수입량(2010년) 중 8%에 해당하는 LNG 확보
 - 이밖에도 콜롬비아 탄광 채광권 취득, 칠레 구리광산 개발, 캐나다 알루미늄 제련 프로젝트 등이 있음.

□ 인프라·시스템 수출 등의 촉진

- 일본 경제산업성은 ‘인프라·시스템 수출 분과위’를 설치.
 - (가격 경쟁력 강화) 가격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해외 생산 거점 활용 및 현지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과의 제휴를 촉진함.
 - (수주 경쟁력 강화) 해외 수주에서 가격 경쟁으로 가지 않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현지 사정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의 활용 등 수주를 위한 현지에서의 공적인 지원을 강화함.

- (일본의 우위성에 대한 이해 촉진) 정보 제공, 실증, 인재 교류 등을 통해 일본의 우위성이 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운용 및 보수 관련 코스트 등 코스트면에서도 일본 인프라·시스템이 우위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함.
- (포괄적 개발 지원) 개별건마다의 수주 경쟁이 아닌 광역 개발 프로젝트 등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 설계·건설, 그리고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의 포괄적 수주를 실현하기 위해 프로젝트 구상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
- (파이낸스 지원 강화) 수주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준비하여 지원을 강화함.

□ 일본 투자 확대를 위한 입지 보조금 확충

- 일본 정부에서는 엔고 등 악화되는 일본내 경영환경으로 산업공동화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부품·소재 분야 및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사업분야(생산 및 연구 개발 설비 신설과 증설 등)에 대해 일본 투자시 보조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크게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현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후쿠시마현으로 신규 이전하거나 공장 신설 및 증설을 하는 기업에 보조를 진행함.
- 일본 투자 확대를 위한 보조금 이용
 - 보조금 규모는 기존 1,400억 엔(2009-2010년 합계) 규모였으나, 이를 5,000억 엔 규모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함.
 -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입지보조금(3,300억 엔)’의 경우 보조율은 대기업 및 중견 기업 1/3, 중소기업 1/2, 그룹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산관학 제휴의 경우 2/3임.

-
- 실제 생산 거점 전용(예산 2,950억 엔) 보조금 약 2,023억 엔에 대해 2012년 2월 3일 1차 공모를 통해 245건(중소기업은 81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되었음.
 - 연구 개발 거점 전용(예산 350억 엔) 보조금 중 희토류 원소 관련사업에 배정된 약 50억 엔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8일에 1차 공모를 통해 49건이 채택되었음.

□ 재생 가능 에너지 고정가격 매입 제도 시행

- 일본정부는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 제도를 시작하였음.
- 동 제도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발전 등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국가가 정한 가격 및 기간동안 전기사업자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임.
- 경제산업성 발표(2012.9.26)에 따르면 8월말 시점 고정가격 매입제도 대상으로 인정받은 발전설비는 130만 kwh가 되었음.
- 이는 제도가 시작된 7월부터 2개월만에 올해 목표인 250만 kwh의 절반을 확보한 것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 주택 이외의 태양광이 72.5만 kwh, 주택 전용 태양광이 30.6만 kwh로 태양광이 약 80%를 차지하였음.

□ 부품조달 글로벌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기회 확대

- 일본의 제조업계의 해외진출 가속화에 따른 현지 조달 증대 및 코스트 삭감을 위한 해외 부품 조달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세계 각지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현지진출 일본기업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 되고 있음.
- 또한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모두 갖춘 우리기업에게 일본시장으로의 부품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실제로 2011년 일본의 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 증가율은 14%로 해외 부품 평균 수입증가율인 6.6%를 상회하였음.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또한 세계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의 우리기업들에 대한 인지도 확대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음.

□ 향후 성장분야에 대한 주목 필요

- 일본 자동차업계에서는 신흥국 시장을 향후 주요 성장분야로 판단하고 각 시장에 맞춘 제품 생산을 위해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전기전자분야에서는 모바일, 게임, 사회인프라 분야를 미래 성장전략 분야로 채택하고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자업종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던 일본이 경쟁상대인 한국, 중국에 밀리면서 주력인 TV 사업 등을 포기,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찾아 나서면서 전자산업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일본의 각 산업계가 판단하고 있는 유망분야를 주시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수요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임.

□ 화학소재 업종 등 투자 유치 확대 노력 필요

- 특히 화학소재 업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노린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기지로 한국도 중요한 투자진출국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
 - 실제로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는 올해 1~9월 기준으로 약 3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도 실적 22.9억 달러를 이미 초과하였음.
 - 그동안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에서 한국은 평균 2%를 차지해 왔으나, 엔고 등으로 인한 투자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4.3%까지 확대된 상황임.
 - 이러한 흐름에 따라 JX NOE의 경우 올해 3월 울산에 총 4.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중국 및 인도 등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P-xylene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등 석유화학분야의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및 투자를 위한 법 및 관련제도 정비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재생에너지분야 진출 확대 추진

- 2011년 이후 일본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언급되는 분야가 바로 재생에너지 분야임.
-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태양광 분야의 투자 및 시장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주택용 태양광 시장은 2010년 약 4,500억 엔 규모에서 2020년까지 8,653억 엔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산업용 태양광 시장도 2010년 약 1,508억 엔에서 2020년까지 8,596억 엔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태양광 관련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공략 등을 통해 성장하는 시장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다이와 하우스) 한국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는 쉽지 않으나 일본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 가능성은 있음
- (교세라) 태양광 패널보다 관련 주변장치의 경우 한국제품의 검토가 가능하며 한국산 축전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작성자

◆ 도쿄무역관

이아영 과장



Global Business Report 12-068

최근 일본 산업계 동향 및 변화

발 행 인 | 오영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2년 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